

광산구, 올해 최고 혁신정책 선정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달고나’ 등

광주 광산구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를 시민의 삶을 이롭게 한 올해 최고의 혁신정책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산구는 전문가와 내부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를 거쳐 뽑은 20건의 우수 정책을 바탕으로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시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전문가, 내부직원 심사(50%), 시민 온라인 투표(50%)를 합산한 결과 전국 최초 위원회 회의 모습 실시간 공개가 가장 높은 득표율로 올해의 혁신정책 1위에 올랐다.

광산구는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구에서 운영하는 118개 위원회를 ‘공개 원칙’으로 전환했다.

시민이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광산구에서 열리는 위원회 회의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으며,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등도 전면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산구가 시도한 ▲이동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휴게쉼터 ‘달고나(달리다 고단하면 나에게로 와)’ 운영 ▲당근광산(당신 근처의, 광산) 프로젝트도 올해를 빛낸 혁신정책에 꼽혔다.

‘달고나’ 쉼터는 지역 커피숍과 함께 이동노동자가 언제든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연계해 휴식과 안전할 권리를 보장한 정책 사례로 주목 받았다.

“당근광산 프로젝트”는 국내 대표 지역기반 민간 플랫폼인 ㈜당근과 협업해 일자리, 공간 등의 정보를 필요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연결 혁신’ 정책으로, 정부와 광주시 등에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광주+ 광산형 통합돌봄 추진 ▲제1회 광산무직ON페스티벌 개최 ▲국내 1호 도심 국가습지 ‘황룡강생태길 30’ 등이 올해의 혁신정책에 이름을 올렸다.

광산구는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29일 열리는 종무식에서 혁신대상을 시상하고, 혁신정책 사례집을 제작해 시민·공직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 한해 광산구가 추진한 모든 정책이 시민에게 사랑받고,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얻은 것은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소통, 상생, 혁신이 녹아든 결과물”이라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시민을 이롭게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확산시켜 광산이 대한민국 혁신 1번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위원회 회의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정책을 도입해 광산구 선정 올해 최고의 혁신정책상을 받게 된 직원들이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산구 제공>

시민 중심 행정시스템 ‘구정 신뢰도’ 높였다

광산구, “경청·소통 바탕... 시민이 주인되는 광산시대 열 것”

광주 광산구가 시민 중심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구정 신뢰도’를 대폭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민선 8기 상생, 소통, 혁신을 행정 철학으로 삼고 시민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1호 결재인 찾아가는 경청 구청장실을 중심으로 구청장 직통 문자, 동 주민과의 대화, 상생소통의 날, 타운홀미팅 등 경청·소통 정책은 광산구만의 확실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에서 15분으로 조정하고, 언어 장애인을 위한 문자 소통 창구 ‘이음번호 0420(장애인의 날 4월 20일 의미)’을 개설·운영하는 등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곧바로 정책에 반영했다.

또 광산구는 민선 8기 들어 열리는 행사 시의 레저적인 인사말과 축사를 없애고, 행사 시간을 내빈 도착 시간에 맞추는 잘못된 문화 등도 바로 잡아가고 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지난 10월 열린

제32회 광산구민의 날 기념식으로, 주요 내빈 축사, 구청장 기념사를 중심으로 진행됐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축사, 인사말 등을 생략하고 박병규 구청장도 기념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지역 어르신과 청소년 2명의 ‘시민 대표’가 무대에 올라 지속가능한 광산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기념사를 발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얻은 높은 시민 신뢰는 광산구가 많은 정책 성과를 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앙부처, 광주시, 외부기관 등 각종 대외 평가에서 60여 개의 상을 휩쓴 광산구는 올해도 또다시 60개 수상 기록을 달성했다.

각 공모사업에도 적극 뛰어들어 106건·340억 원의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민선 8기 광산구정은 상생, 소통, 혁신을 바탕으로 모든 지향점을 시민에 두고, 시민을 이롭게 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광산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복지부 자활 우수지자체 평가

광주 광산구 ‘대통령상’ 수상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 주관한 ‘2023년 자활 분야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시·도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자선형성 지원사업, 자활기금 활성화, 자활사업운영 등 자활 전반 4개 분야를 평가했으며, 광산구는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어동지역자활센터, 광산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직접 사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 600여 명(월평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활참여자의 노동 능력, 자활 요구,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의 자립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확대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한 노력으로 대통령상을 받게 돼 큰 영광”이라며 “시민에게 이로운 광산복지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들이 지난 26일 구의회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역사서인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제공>

광산구의회, ‘역사 왜곡’ 전라도천년사 폐기 촉구

일본서기 지명 그대로 사용... 별책부록 아닌 전면 수정해야

광산구의회가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역사서인 ‘전라도 천년사’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전라도 천년사는 2018년부터 편찬이 추진돼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됐지만, 고대사 부분에 일본서기 속 ‘임나 4현’의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역사 왜곡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구의회는 이어 “지난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북을 지역구로 둔 문체위원들이 수정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서한문을 광주·전남·전북 광역단체장에 전달하며 공론화했다”며 “전라도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갈등과 분열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또 “시민단체와 정치권, 재야사학자를 중심으로 강한 규탄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편찬위원회는 157건의 공람 의견을 별책부록으로 묶어 별도 편찬할 계획이라는 황당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산구의회는 “분리된 별책이 아닌 단권본의 부정과 전라도 지명·비칭, 전라도 해안지방의 야마토 왜 지배설 등 전일사관의 논란이 되는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광주시도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해 전북·전남도지사와의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라도 천년사 편찬위에 ▲시민단체와 역사학계의 의견 존중 및 소모적 논쟁과 발행 중단 ▲철저한 고증과 비판을 통한 전라도 역사 정립 등을 촉구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

대학생과 떠나는 돌봄여행 ‘마실가세’ 성과공유회

광산구-호남대 협력 사업... 내년 활동 방향 등 논의

광주 광산구는 지난 22일 동백빌딩 2층 교육실에서 대학생과 함께 떠나는 돌봄여행 ‘마실가세’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

‘마실가세’는 지난 5월 광산구가 호남대학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추진한 사업이다.

장기 일원 후퇴한 재가노년대상자와

서포터즈(호남대학교 간호학과생)를 연결해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돕고, 동행 산책, 자원보호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올해 돌봄 현장에 첫 발걸음을 내디딘 라온서포터즈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내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향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행정과 대학 간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사업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선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밑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